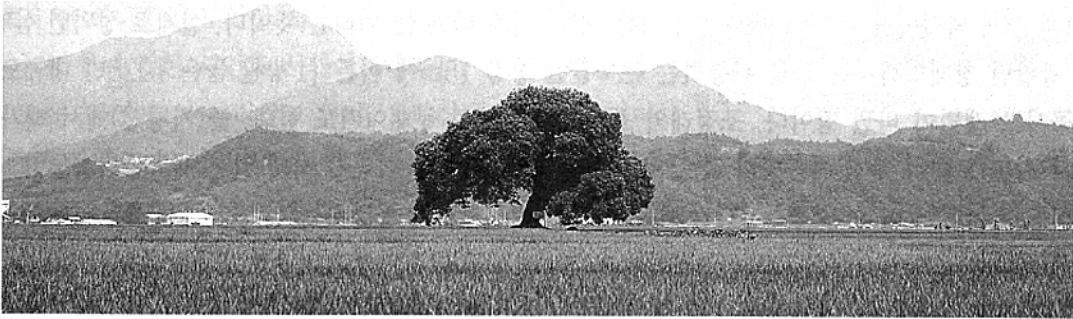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고장, 김제

김제평야에서 열리는 지평선축제

김동정 | 여행칼럼리스트



우리 나라 제일의 곡창지대이자 도작문화(稻作文化)의 발상지인 김제...

마한시대에는 '벽비리국(辟卑離國)', 백제시대에는 '벽골군(碧骨郡)'으로 불렸던 김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저수지 벽골제(사적 제111호)로 유명한 고장이다.

삼한시대인 백제 비류왕 때 축조된 벽골제는 밀양 수산제, 제천 의림지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수리시설로 꼽힌다. 이 저수지는 선조들이 벼 재배에 들인 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농경유적으로, 김제시 부량면 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둑이다. 둑의 길이가 3.3km, 몽리 면적이 9840결(1만 ha), 수문이 5개나 되는 벽골제가 금만평야는 물론 정읍, 부안까지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어렵짐작할 수 있겠다.

지금은 2,500m의 제방과 '장생거'와 '경장거' 두 개의 수문만 남아 있지만, 저수지를 만들고 물길을 열어 오직 땅과 함께 살았던 농군들의 혼은 17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다.

넓고 기름진 옥토를 가진 김제시는 전국 쌀 생산의 40분의 1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로 김제시 인구의 40% 이상이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김제평야에서 생산된 쌀은 「김제특미 지평선쌀」이라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에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전라북도의 서부에 위치한 김제는 북으로 익산시와 군산시, 남으로는 정읍시, 동으로는 전주시와 완주군, 서로는 부안군과 접하고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 그리고 서해로 이어지는 지평선과 수평선은 이곳이 풍요의 고장임을 말해준다.

한반도 땅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 김제.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김제평야에 가보라고 하는 것은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쪽빛 하늘과 황금색 벼들이 출렁이는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한번쯤 가서 혼탁해진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 것도 좋겠다. 인공 구조물

들에 익숙해진 도시인들에게 지평선이 보여주는 순수의 빛은 한 줄기 시원한 청량제다.

김제시 광활면. 이름 그대로 '광활한' 땅인 이곳은 몽골의 대초원을 연상케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산이 없는 유일한 면(面)이라고 했던가. 김제 사람들은 광활면 일대의 넓은 들을 곧잘 '징계 멩계 외얏밧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김제 만경 너른 들'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성덕면 심평리에 서 광활면 창제리까지는 들을 관통하는 논둑길만 장장 15km에 이른다. 광활 들은 1925년 대규모의 간척공사로 갯벌이 바뀐 땅이다.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의 무대이기도 한데, 들(지평선)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옥토로 이름을 날린 김제는 식민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노략의 대상으로 삼은 땅이다. 소설 <아리랑>에도 일본인 하시모토가 등장하는데 그가 사용했던 사무실이 죽산면에 있다.

가을의 한복판인 이즈음, 푸른 하늘과 맞닿은 김제들녘이 추수를 앞두고 시나브로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오직 한 곳, 김제로 오세요.”

김제시가 주최하고 지평선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지평선축제의 주제이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지평선축제는 농경문화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와 추수를 앞둔 황금들녘의 풍요로움을 도시인들에게 안겨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광객들은 농경문화의 발상지에서 잊혀져 가는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농촌의 넉넉한 인심도 맛볼 수 있다.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김제 들녘의 한가운데인 김제시 부량면의 벽골제(碧骨堤)와 낙조가 아름다운 만경강 하구의 심포항 등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 벼 베기와 새끼 꼬기, 지평선 논길 걷기, 허수아비 만들기, 홀태로 벼이삭 훑기, 연날리기, 열기구 타기, 가마니 짜기, 도리깨질 등이 그것이며 이와 함께 전통놀이인 입석줄다리기, 쌍용놀이, 무자위로 물 퍼올리기, 농악경연대회, 대장간 시연 같은 민속놀이도 진행된다.

특히 쌍용놀이는 들판의 민속놀이로는 드물게 용이 중심이 되며 착한 백룡과 나쁜 청룡이 등장하는데 청룡을 말리기 위한 단야가 벽골제 물에 뛰어들면 청룡이 감동하여 난동을 그치고 백룡과 함께 벽골제를 지킨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쌍용놀이는 물을 대주던 벽골제와 그 수호신을 숭상하고 안전을 비는 마음에서 비롯된 놀이이자 축원행사로서 이 지역 농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쌍용놀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객들이 소달구지를 타고 황금벌판을 둘러볼 수 있도록 우마차를 운행하고, 공중에서 드넓은 평야를 볼 수 있는 열기구도 띄울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축제기간 중 '지평선쌀'과 여러 특산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장도 운영한다. 축제장 한켠에 있는 수리민속유물전시관에 가면 농경사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백합(마당조개)으로 유명한 만경강 하구 심포항에선 조개캐기 대회 같은 흥미로운 이벤트도 많이 열린다.

농촌형 도시인 김제는 또한 문화유산의 고장이기도 하다. 벽골제에서 김제시내로 나오다 보면 70가마

의 쌀을 담았다는 뒤주를 만나게 된다. 쌀뒤주는 조선시대 만석꾼이 수많은 과객과 식객을 위해 만든 것으로 이곳이 예로부터 곡창지대였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김제에서 단 하나뿐인 모악산(母岳山)은 그 이름만큼이나 부드러운 산이다. 산에 깃든 사연도 사연이려니와 이 산 기슭에는 유서 깊은 고찰 '금산사'가 자리잡고 있다. 모악산은 예로부터 어머니의 산으로 불려왔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모악산의 꼭대기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형태의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엄피' 또는 '모악'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모악산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호남평야를 적셔준다.

모악산의 큰절, 금산사는 신라 혜공왕 2년에 세워졌다는 설과 법흥왕 1년에 창건됐다는 유래가 있으나 확실치 않고, 경덕왕 때 진표율사에 의해 증창되면서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이 사찰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아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갇혀 지낸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경내에는 국보 62호인 미륵전을 비롯하여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의 대형 불상이 봉안된 대적광전과 육각다층석탑 등 국보급 문화재들이 즐비하다.

금산사에서 눈길을 끄는 문화제는 미륵전이다. 일주문과 금강문, 보제루를 거쳐 절 마당에 들어서면 거대한 규모의 3층 법당이 위용을 드러낸다. 겉보기에는 3층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모두 하나로 트인 통층 구조이다.

김제 시내에서 702번 지방도를 타고 서쪽으로 달리면 만경강이 서해로 흘러드는 지점에 망해사가 자리잡고 있다. 망해사는 이름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절이다. 절 앞으로는 드넓은 갯벌이 아득하다. 김제 어민들은 이곳 갯벌에서 나는 온갖 패류만으로도 적잖은 소득을 올린다. 키조개, 고막, 바지락, 동죽, 맛조개까지 우리 나라 갯벌에서 나는 조개는 죄다 있는 셈이다. 이러한 패류뿐만 아니라 철따라 실뱀장어, 대하, 꽃게 등도 꽤 쓸쓸한 편이다.

망해사 뒤편의 전망대는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전망대에 오르면 바둑판 모양의 만경평야가 한눈에 바라보이고 눈을 돌리면 심포항 앞바다가 다가선다. 심포항은 예로부터 각종 해산물이 풍부한데, 특히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백합의 주산지이다. 백합(생합)은 크기에 따라 대합, 중합 두 가지가 있는데, 백합죽이나 싱싱한 횡감으로 인기가 좋다. 해질녘 잔잔한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심포항의 낙조는 또 다른 볼거리다. ㉞



열기구 띄우기(지평선축제)

◆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나들목에서 716번 지방도로를 타고 김제로 간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김제행 고속버스가 수시로 있으며 열차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김제역에 정차한다.

벽골제-죽산-광활면-심포항으로 이어지는 국도변에는 해바라기며 코스모스가 한들거리 그 모습이 장관이다.